



# 문화매일신문



제1527호

2024/1/31/Wed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 경기도 김동연지사,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들과 청년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 김동연 지사, 30일 일본 우호교류지역인 아이치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 실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을 만나 경기도와 아이치현 간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청년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아이치현의회 자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방한했으며, 경기도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아이치현지사의 서한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아이치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이치현과 제조업이라든지 산업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치현과 청년교류를 해왔으면 한다. 현에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도 실무책임자들과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치현 의원단을 대표해 다카카와 도시나오(高桑敏直)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IT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월 개장하는 지브리파크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한다”며 “청년교류는 마침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다. 경기도와 청년교류를 촉진해 나



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지사는 이날 의원단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아이치현과 경기도, 나아가 아이치현과 한국이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의 상호이해 및 우호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

다. 특히 2017년부터 청소년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고, 코로나19로 대면교류가 힘든 시기에도 양 지역 고등학교를 1:1로 연결해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아이치현에서 개최되는 ‘한국페스티벌 IN 나고야’에 경기도 예술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K문화와 경기도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아이치현은 일본 중부지역에 위치한 일본 제3의 대도시권으로 도요타 자동차, 나고야 철도 등 제조업 발달을 바탕으로 한 산업관광의 메카다.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최지이기도 하다.

김병상/기자



## 전남도, 31일 수출 유관기관 온라인 시책 설명회

### 전남FTA통상진흥센터, 11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지원 안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전남FTA통상진흥센터는 31일 오후 2시 11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4 수출 유관기관 온라인 시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 기관은 전라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무역보험공사,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FTA통상진흥센터다.

설명회에서는 수출보험료 지원,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상품 홍보물 제작 지원, 수출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운영, 수출기업 해외물류

비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 전남도와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수출 지원시책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수출(희망) 기업에 안내되고, 설명회 종료 후 전남도 ‘ 으뜸전남튜브 ’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기업인이 언제든지 시청하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희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은 “지역 수출기업이 각종 글로벌 이슈와 비관세장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시책 설명회를 통해 수출(희망)기업에 보다 폭넓은 정보를 제공, 이들이 잘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 참석

###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1. 30, 화) 서울 강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국운융창’과 ‘국대민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대통령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동을 하고, 이어지는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하며,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은 한국 문화의 뿌리에 전통문화가 있고 그 중심에 불교가 자리잡고 있다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불교계가 해온 중요한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

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축사 이후 이어진 ‘신년 발원동 달기’에서 대통령은 회장 진우스님, 한국대학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장 진우스님, 수석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원장스님과 재가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 인사들과 8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대불회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우 시민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대불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경상북도, 민간주도 경제발전 시동 건다!

### 경북도 30일 민간주도 발전전략 업무보고...중앙과 민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규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 공항경제권 조성도 민자유치 이철우 지사, 지역과 민간자본이 만날 수 있는 ‘창’ 을 새롭게 만들 것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도청에서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철우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까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과 사업성이 공존하는 영역의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지방소멸대응기업과 정책금융의 자금이 합쳐 3,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이다.

◆ 이철우 도지사, 도정운영 방향 한 축으로 ‘민간주도 지역발전’ 설정

경상북도는 작년 연말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민간주도의 지역발전 전략’을 선언하며 24년 도정운영방향의 한 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내세우고 저출생 극복과 마찬가지로 전직원이 참여해 56개에 달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사업아이디어를 모았다.

현재, 경상북도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으로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김천 ‘제2가락시장’ 광역농산물유통물류복합센터’ 그리고 22개 전시군을 상대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지역에 필요하지만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대거 제안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2030년 개항을 앞둔 신공항 항공물류단지와 관련해 ▲스마트 항공물류단

지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K-UITI.에너지 산업육성 같은 정책사업과 연결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업무를 내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이 수확이다’라면서 “앞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사전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 경북!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상반기 내로 자체 투자펀드 출범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펀드사업으로 추진하며 동시에 최대 1,000억 원 규모 경북의 자체 ‘민간투자펀드’도 상반기 내로 출범시켜 연말쯤 사업을 출범시킨다.

경상북도에서 준비하는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를 목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의 한계 극복하는 레버리지효과 기대

경상북도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은 그동안 소규모 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지방소멸의 판을 바꿀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실제, 행안부에서 연(年) 1조 원 규모로 편성한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107개의 기초지자체에 분산 배분되다 보니 사업의 가짓수는 558개에 사업당 평균 투입 금액은 18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배~20배 이상의 리턴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



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공여부!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과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펀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이 핵심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때 민간의 투자와 기업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니즈의 파악도 중요하다’면서 ‘최근 기업들이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ESG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투자펀드의 핵심은 수익성이면서 민간과 공공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익성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은 지역활성화펀드 TF팀의 전문가인 장철용 한국성장금융 혁신금융실장, 최원재 산업은행 미들오피스팀장 등이 참석해 경북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앞으로 보장해야 할 점들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 이철우 지사, 지방시대 민·관의 협력과 역할분담 절실

이날 이 지사는 투자펀드는 지역과 민간 자본이 만나는 새로운 ‘창’인 만큼 민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 지역발전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공공은 정책 펀드로 마중물을 제공하며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은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영덕이 1,000만 관광객시장이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비수도권의 사업들은 공공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강하다”면서 “민간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하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사업과 연결성도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도 추가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경상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도의회, 일본 외무상 “독도 망언” 강력 규탄!

### 배한철 의장,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 독도수호특위,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 즉각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30(화), 일본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매년 1월 국회 외무상 발언, 3월 교과서 검정, 5월 외교청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날조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외무상의 국회 독도 망언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여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의 외무상이 교체되어도 계속해서 반복 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규탄하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의회**  
GYEONGSANGBUK-DO GOUNCIL  
http://council.gb.go.kr

**일본외무상 국회 외교연설 독도 망언  
규탄 성명서**

-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일본은 반복적인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하에 양국의 건전한 협력 관계 회복과 세계평화 구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의장으로서 26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한철

# 인천시의회 산경위, 부평·주안 지하도상가 현장방문해 활성화 대책 모색

### 작년말 불법전대금지 조치 이후 운영실태 파악 및 상인 애로사항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0일 새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부평 지하도상가와 주안 지하도상가를 찾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말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불법 전대 점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본격 시행된 이후의 상가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평을 지역구로 둔 이명규(국·부평1)·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과 주안을 지역구로 하는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 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와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부평 지하도상가와 오후 주안 지하도상가를 각각 방문해 관계자들의 보고를 청취한 뒤 상가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인천시 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총 3,474곳이다. 이 가운데 2,716곳(77%)이 직영 중이며 휴업 547곳(16%), 공실 190곳(6%), 사용제한 10곳(0.3%), 전차인 퇴거불용 7곳(0.2%), 전대 4곳(0.15%) 등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직영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휴업 및 공실 점포를 줄여 직영률을 더 높여야 지하도상가 상권이 제대로 살아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가 관계자들은 상가 사유로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사용자가 다른 점포 사이의 경계벽 철거를 허용하는 ‘합칸’ 등을 요구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명규 부위원장은 “3천여 곳이 넘는 상점으로 이뤄진 지하도상가는 인천의 상징이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곳”이라며 “시에서는 내실 있는 상권 활성화 계획을 추진해 상인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상길 부위원장은 “지하도상가가 살아나려면 상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며 “산경위를 포함한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계획으로 관리비·공제회비·마케팅비 등 지원, 공실 일반입찰 월 1회 이상 시행, 지하도상가 활성화 계획 및 협의회 구성, 냉난방기 및 전기설비 교체, 불법 전대 행정처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남/기자



# 이준호 의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 개정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 연장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 30.(화), 조례안 심사에서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한 날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를 말하며, '22년 기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는 5만8천여명에 이른다. 이들 중 초혼 신혼부부의 60.9%는 무주택자, 89.0%가 대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

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 한해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신 중으로 출산 전인 경우는 연장이 불가하여 참여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향후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태/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김병근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개발공사 사장으로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개발공사의 도시개발사업과 주택보급사업 등에 대해 후보자의 추진 방향 및 철학 등을 물으며 경영 능력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건축 관련 민간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인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 마음가짐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충남도내 불균형한 도시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충남개발공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역할부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충남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핵심 공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다

집했다.

이어 직무수행계획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한 신경영 체계 확립, 지역사회 동반 성장을 위한 ESG 경영 실천, 지속성장 경영 기반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내부 경쟁력 강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정착을 제시했다.

이재운 위원장(계룡·국민의힘)은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균형 잡힌 도시개발사업과 도내 주택보급사업 등을 선두에서 추진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라며 “인사청문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적합한 운영과 산적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인사특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민안전테마파크 현장방문

### 1. 30.(화) 제30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 30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0일(화), 동구 용수동(팔공산로 1155)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안전체험장을 견학하는 등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 보았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06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대구 소방안전본부의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일반현황 등을 보고받고, 안전체험장을 견학하는 등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고자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시민안전테마파크를 둘러 보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다각적인

홍보 등을 주문하였다.

임인환 위원장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지금까지 안전교육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라며, 2024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대구 핫 플레이스(hot-place)로 거듭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08년 12월 1관 및 2013년 11월 2관을 건립하게 되었으며, 현재 지하철안전,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지진안전 등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윤근수/기자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실내수영장 현장점검에 나서

### 철저한 시설 보수로 전국소년(장애인학생) 체육대회 차질 없는 준비 당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실내수영장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30일 목포 실내수영장에 대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실내수영장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시설 관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언론에서 보도된 결로 및 곰팡이, 녹물 등의 발생 원인을 파

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오히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오는 5월 예정된 전국소년(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대회 전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은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시설 보수를 했는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 보수 공사에 예산이 지원되고 공사 기간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목포시에 당부했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김관호 위원장과 박효상 부위원장을 비롯한 박창수의원, 정재훈의원, 고경욱의원, 최현주의원, 최유란의원 7인으로 구성됐다.

박종배/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비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시민 의견정책 반영"

##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의회 기능강화할 것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의장은 언제나 변함없는 자리에서 진솔하게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지역 주민들의 끈끈하고 애정 어린 마음을 얻어 6선 시의원으로서 수원 특례시의회 12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의장은 의회가 결정하는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이 시민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며,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상충 되는 일도 가끔 있

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각자 역할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수원 특례시의회 의원 37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이지만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사실상 여소야대의 형국이다, 6선 의원의 의정 경험과 과정을 통하여 상생과 협치의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 정치적 도전계획에 대하여

는 현재는 시민들이 부여한 책임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쏟는 것뿐 이라며, 현재 위치에서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시점에서 20여년의 의정 생활을 뒤돌아보며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것이라며, 지금은 마무리 의정에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 1. 의장으로써 지난 1년 반을 되돌아본다면

가장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수원시민께 감사드립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마치 한 달 같았던 느낌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경기도 각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활동하며 열심히 뛰었다.

제12대 수원시의회를 시작하며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여-야구분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 2. 의장님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2004년 제7대 수원시의회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정치를 해오고 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임으로, 말로만 하느라 시민들께서 "정치는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도록 행동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정책의회를 추구하는 것 또한 시를 견제·감시하는 일을 넘어 정책제안을 만들어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지금까지도 저는 정계 입문 당시의 마음가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지나고 나서 하지 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후회 없이 일하자' 다짐한다.

'명분', '원칙', '소신'을 정치철학으로 삼아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4.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데, 현재 어느 단계이고 전망은

국회는 국회법,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이 있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이 독립된 관공법이 없어 지자체장에 따라 의회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만큼 지방의회는 주민의 필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

되어 자치분권에 준하는 예산편성권, 인사권, 조직권 등을 의회가 스스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저는 현재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대한민국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의 자격으로 광역지방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정기회의를 통해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도 지난 11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직후 여야의원이 모두 모여 한목소리로 '지

### 3. 수원시의회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최하위였는데, 청렴문화 확산 및 공정한 의회를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수원특례시의회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올해 초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의회 전체의원 의정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37명은 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수원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경계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방의회법안' 국회의결 촉구 건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현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은 조속히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 앞으로 중점과제로 역점추진정책이 있다면

시민에게 더욱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정책의회 기능 강화', '시민과의 폭넓은 소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첫째,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 최근 「수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23. 12. 29.)으로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만들어졌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자문을 위해 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전문가 등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둘째,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지역 현안과 시민의 고충을 토론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해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발굴·마련하여 시에 제안하는 등 정책의회로서의 기능을 고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시민과 더욱 폭넓게 소통하겠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해 의회 사상 처음으로 1주년 행사를 통해 '시민이 묻고 답하다'라는 공식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의원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현 주민자치·통장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모색'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시민과 여러 차례 토론회로 소통한 바 있다. 시민과의 토론과 소통은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된다.

### 6.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첫째, 요즘 누구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먹고사는 문제다. 의회는 조례제·개정 등 의회만이 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하고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갈 것이다.

둘째, 조례로만 하기에 시급한 일들은 의회가 직접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 '정책제안'으로 시에 계속 전달할 것이다. 특히, 민생문제는 타이밍이다. 시에서 사업이 채택되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셋째, 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더 힘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22.1.13)되었지만, 지방의회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의회 독립성 강화를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이

어지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지방의회'로 지역의 문제를 의회가 지역 주민과 함께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경기도 시 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실무위원으로 타 의회와 힘을 모아 남은 임기 동안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활동 할 계획이다.

### 7.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실현한 민생정책은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의회가 제일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정책제안 1호 행정동 공방거리 활성화 제안을 통해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다. 현재 지역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올해는 정책제안 2호로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원자재값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나, 수원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낮은 효과성과 다양성 부재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의회는 지난 해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도에는 정책제안 2호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제안으로 수원 시민들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8. 지역 현안을 점검하며 개선된 성과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제도' 도입을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난해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정소년청년재단, 수원도시재단 등 6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올해는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장학재단 등 2024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시 산하 공공기관 5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전문

성과 지식,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정책검증을 하였다.

의회의 이런 노력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그로 인해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 9. 2021년 9월 착공한 수원시의회 청사 완공이 임박한데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1952년 수원시의회 첫 출범 이후 의회는 별도의 독립청사 없이 의정활동 등을 해왔다.

현재 의회 독립청사가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12,504㎡에 지하 3층, 지상 9층이며, 약 190여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도 조성한다.

새로이 조성하는 의회의 독립청사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비롯해 시민 친화적 공간을 만들어 시민의 대면자인 수원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도울 것이다.

수원시의회는 2024년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의회로 더욱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 10. 새해 시민들에게 한마디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제12대 전반기 동안 수원특례시의회 37명의 의원은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현안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수원특례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겠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곁에는 언제나 수원특례시의회의 있음을 기억 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삼/기자



# 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현판식 개최

광주시는 30일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보고회 및 현판식을 열고 여성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주임록 시의회 의장, 시의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에 이어 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문 낭독,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인력배치, 여성친화도시 특성 협력체계 구축, 5대 조성 목표별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 신규 지



정을 획득했다. 시는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14개 추진 과제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2024년에는 김범상/기자

특히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디딤돌 취업 지원 사업, 시민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신규 추진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은 여성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점"이라며 "광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핵심 가치인 성평등, 여성 일자리, 안전, 돌봄, 참여를 실현해 광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우수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여주시, 전국 공공기관 벤치마킹 요청 러시!

## 경기도 내 유일 '2년 연속 1등급' 달성한 화제의 청렴맛집 여주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아 '청렴맛집'으로 화제가 된 여주시에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시의 우수 청렴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전국 498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여주시를 포함하여 단 6개 기관뿐이며, 2023년 청렴도 1등급이자 2년 연속 1등급 달성 기관은 경기도 내 여주시가 유일하다.

여주시는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2022년 평가에서 전년 대비 무려 4등급이나 수직 상승해 청렴도 1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뤘으며, 2023년 평가에서는 공감도 높은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힘을 쏟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의 영예를 누리 많은 공공기관의 관심과 부러움을 샀다.

여주시는 벤치마킹 방문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많은 기관이 궁금해한 여주시의 청렴도 1등급 달성 비결과 함께 공직자의 청렴 인식을 높인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부서장과 직원 간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청렴 문화를 일군 '청렴·소통의 날' 운영,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하는 '우서장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설명회' 등 공감도 높은 우수 청렴 시책에 대한 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있다.

청렴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 모 지자체 담당자는 "여주시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의 자리를 지킨 비결이 궁금했는데,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리더십을 잘 발휘했고, 모든 공직자가 청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반부패 인프라를 강화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경기도 내 유일



한 청렴 1등급 기관으로서 많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함께 기여하고자 여주시의 우수 청렴시책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며, "2024년에도 최 우수 청렴 도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패 없이 투명하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청렴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범상/기자

# 수원특례시 여성친화도시 정책 승승장구!

## 주민 참여형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해 2023년 국무총리 표창 수상

수원시는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역사가 깊은 도시다. 지난 2010년 최초 지정된 이후 2015년 재지정됐고, 10년간 성과를 토대로 2022년 다시 신규 지정을 받았다. 게다가 신규 지정 1년 만에 여성친화도시 국무총리 표창이라는 경사를 거머쥐었다. 100여곳에 달하는 여성친화도시 중 우수한 정책을 펼쳤다는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성평등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의 활동 역량을 강화해 온 수원시의 노력을 확인해 본다.

◇여성이 주도하는 안전, 마을안전 이야기

여성친화도시 수원시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는 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 안전이야기'이다. 마을의 곳곳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하는 마을 안전 책자다. 매년 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삶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다. 2023년 권선구 곡선동, 2022년에는 권선2동에서 마을 안전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담아냈다.

마을 안전이야기 책자의 특징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이 주체적 역할을 해낸다는 점이다. 지난해 제작 완료한 곡선동이야기가 그렇다.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중 마을 안전에 관심이 있는 10명 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책자를 만들었다. 이들은 마을안전활동가 양성과정을 이수해 인터뷰와 사진 촬영은 물론 글쓰기 방법까지 마을을 기록하는 의미와 방법을 배웠다. 이후 기획 회의를 거쳐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원고로 작성해 책자로 발간하기까지 총 7개월의 시간과 노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행복은 곡선, 안전은 직선' 책자에는 13명의 주민들



이 생각하는 마을 안전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인터뷰에는 어린이부터 청장년층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경로당 회장과 방범기동순찰대장 등 마을을 구성하는 각계각층 주민의 목소리로 마을의 안전에 대한 의견이 기록됐다. 수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다양한 사연을 접하고 도움을 준 편의점주, 항상 호우라기를 지니고 다니며 동네를 지키는 노인회장, 4대를 이어 곡선동에 살고 있는 토박이, 주민단체를 이끌며 마을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체인 등이 마을이 더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책자에는 CCTV와 세심함 등 안전 시설물이 표시된 안전지도가 함께 수록돼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주기도 한다.

곡선동에 앞서 지난 2022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의 활동으로 마을안전이야기를 제작했던 권선2동의 경우 '권선2동 마을이야기' 책자를 자체 제작하는 추가 사업도 진행했다.

여성을 주축으로 마을에 대한 역사와 안전을 주제로 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을 넘어 시민 중심의 지역활동을 고취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원 여성의 일자리 확대, 법률사무원 양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 일자리 확대도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수원시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취업 취약계층인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고, 지역 내 적절한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일자리의 선순환 모델도 만들었기 때문이다.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수원시와 아주대 산학협력단,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협력해 법률사무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수원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개원한 이후 법률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법률사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수원시가 2021년부터 추진한 여성

일자리 사업이다.

청년 여성과 경력보유 여성이 훈련생으로 선발되며, 이들에게 법률사무소 취업에 필요한 60개 강좌의 교육훈련 과정이 지원된다. 또 법률전문가 등이 연계된 멘토링은 물론 취업을 위한 특강과 상담 및 컨설팅도 지원해 취업 취약계층 여성들을 법률사무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은 취업 후 고용 유지까지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첫해에는 30명의 훈련인원 중 23명이 취업해 20명이 고용을 유지했으며, 2022년에는 30명 중 20명이 취업하고 17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25명이 훈련을 받고 양성돼 현재까지 1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선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성 임OO씨(26)는 수원시의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재취업에 성공해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체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

## 시 소관 사업장과 도급용역위탁 계약 사업장 대상 관리·감독 강화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재를 경유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김범상/기자

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 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

**중대재해 처벌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미만 공역·위탁 계약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상인 사업장**
  - 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50억 이상 공역·위탁 계약
  - 대상사업장: 원료재를 경유 업종(기타 업종)
  - 대상사업장: 공중이용시설(원료재를 경유 업종 제외)
  - 대상사업장: 공중교통수단(원료재를 경유 업종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상인 사업장(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 사업장
  - 대상사업장: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사업장(원료재를 경유 업종 제외)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 사업장(원료재를 경유 업종 제외)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 사업장(원료재를 경유 업종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대상인 사업장(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 대상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대상사업장

한정현 | 용인특례시 | 031-320-1111 | www.yongin.go.kr



# 이웃 사랑을 실천으로 따뜻해지는 이천시

지난 25일, 갑작스러운 한파도 녹여 버릴 따뜻한 훈풍이 『행복한 동행』에 전해졌다.

(주)바로바로패널에서 극세사이불 14개, 농업회사법인 신선피엔에프(주)에서 한우 우족 1,000박스(박스당 2kg), CJ씨푸드에서 선물용 비비고 김 150세트, 한국생활폐기물협회 이천시지회에서 성금 520만원을 『행복한 동행』에 기탁했다.

(주)바로바로패널은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건축자재 납품업체로, 난방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이불을 기탁하여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농업회사법인 신선피엔에프(주)는 이천시 마장면 소재지의 한우 유통 업체로 추운 겨울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우 우족 1,000박스(박스당

2kg)를 기탁했다. 신선피엔에프(주)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쌀 10kg 303포를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기탁한 바 있다.

CJ씨푸드(주)는 수산업 가공 식품 제조업체로 이천시 신문면에 공장이 설립되어 있으며 평소 용인 소재지의 복지관을 통해 보호 가구에 김장김치와 비비고 김을 기부했으며 올해는 명절을 앞두고 이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비비고 선물용 김 150세트를 기탁했다.

한국생활폐기물협회 이천시지회는 폐기물처리 기업 4개소의 합쳐 만들어진 단체로 (주)설봉씨엔티, (주)이천씨엔티, 동림환경(주), 대림종합산업(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새해를 맞이하여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해 각 기업에서 성금을 모아 520만원을 행복한 동행에 기탁

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기탁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온정 덕분에 이천시가 행복해진다”며 어려운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탁자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인프라, 시민과 함께 나누며 가치 창출”

2024년 업무보고서 공간·문화자원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방안 논의



얼마 전 고양시가 개최한 고양종합운동장 대관 공모사업 설명회. 유력 공연 기획사를 비롯한 18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사업은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용해 대형콘서트, 페스티벌 등을 고양시로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했다. 서울과 인접한 3호선 역세권이라는 점도 큰 메리트다. 인근에는 국내 최대 국제 순회전시장인 킨텍스가 있어 전시장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고양시는 고양시 내 인프라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9일 열린 교육문화국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흔히 신도시로만 생각하지만, 고양시는 이미 풍

부한 인프라와 문화자원을 갖고 있다.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는 덕양구 삼송동 유수지를 활용해 테니스코트 5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수지는 장마·호우 등으로 늘어난 빗물을 임시로 저장했다가 다시 배출하는 수해 방지 시설이다. 시는 물이 차지 않는 시간대, 안전대책을 확보해 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시민이 테니스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고양시에 소재한 문화자원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고양시에는 서오름, 서삼릉 등의 세계문화유산과 사적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 풍부한 문화유산이 포진해 있다.

이동환 시장은 “5천 년 넘는 세계 최초의 재배법씨 ‘가와지법씨’를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

이다. 이 가와지법씨가 단순히 법씨로 남을 것인지, 혹은 전국 방방곡곡을 물려줄게 하는 고양의 보물이 될지의 여부는 고양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양의 특색과 역사성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그릇’으로서 공립박물관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는 현재 학예연구사를 중심으로 기본 계획을 자체 수립하고 건립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평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임진왜란 3대첩인 행주대첩 승전지인 행주산성 복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시는 행주산성 일원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으로, 올해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행주산성에 접해 있는 한강하구에 수변길을 조성해 방문객 편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고양 북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고양 북한산성에는 8개 전통사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재가 자리잡고 있다. 시는 서울의 한양도성과 연계, 고양시의 3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 중으로, 올해 11월 예비평가 후 대상에 선정되면 2027년도 세계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한편, 고양시 업무보고는 이번 달 말 마무리되며, 보고에서 논의된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구체화하여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영기/기자

# 화성시, 시민들의 일상회복까지 수질오염사고 피해복구에 총력

화성시가 ‘화성 평택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시민들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화성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요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함에 따라 오염수 처리 및 방제дук 유지관리, 하천수 우회 등의 조치는 화성시를 비롯한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몫이 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별재난지역이 무산된 것과 관계없이 화성시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모든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급기관에 현재 저류조 설치 기준의 3~4배 기준강화를 건의하여 동일한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 제도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1,360톤, 총 30,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하여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일 1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손민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독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사고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오염수를 농도에 따라 ▲위탁처리폐수

▲공공처리폐수 ▲공공처리하수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으며, 각각 7,728톤, 1,890톤, 21,360톤, 총 30,978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가 필요한 고농도 폐수의 경우 수거를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오염수 수거를 위해 전문 폐수처리차량 22대, 공공폐수·하수처리차량 40대를 동원하여 총 1,842회 수거를 진행했다.

또한 사고현장에서 관리천으로 연결되는 구간과 관리천에 총 11개소의 제방을 쌓아 오염수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했고, 3개의 펌프 가동을 통해 일 14,000톤의 관리천 상류수를 용수간선로로 우회시키고 있다.

손민성 화성부시장은 “완전한 사고 피해 수습을 위해 경기도에 재난관리기금 추가지급을 요청했다”며 “오염수 확산 방지를 위한 독 설치 등에 작업공간을 확보해준 인근 농장 및 목장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 복구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수가 관리천에

유입되는 지점의 수질을 측정할 결과 첫날인 10일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오염수 수거 및 방제작업을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부유물질(SS)을 제외한 모든항목에서 수질기준 청정지역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는 향후 수질 및 토양 오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방제작업 구간 설정하는 등 사고 전 상태로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 안양시, 설 연휴 대비 분주...전통시장 화재 대비 및 원산지 표시 점검

안양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30일 시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날 오후 1시30분경부터 장제성 안양소방서장과 함께 남부시장과 관양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등을 살펴봤다.

최 시장은 “최근 다른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29일부터 안양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경기서부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시본부, 상인회 등과 함께 소화시설 및 점포별 화재알림시설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된다.

시는 용역을 통해 화재알림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고 있으며, 화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심야 시간에는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 감지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상인회도 자체적으로 자율소방 활동 강화, 안내 방송 등 화재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설을 앞두고 관내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에 대상으로 전문 원산지 감시원과 함께 이번 달부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관내 전통시장·중대형 유통매장 등이 판매하는 수산물·육류·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29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다.

시는 원산지 표시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중대사항 위반의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가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우용/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갑)을 끝으로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 여정 마무리

네 차례 시민과 소통에서 총 3700여 명 시민 참가 열띤 분위기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분당(갑))에서 1000여 명의 시민을 만나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바쁘신 와중에 새해 인사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시민께 큰절을 올렸다. 이후 “성남의 새로운 50년의 첫해로 대한민국 특별도시 ‘새로운 성남’의 장을 열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주요 핵심 시정 현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핵심 시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별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서현로 및 돌마로 공공녹지대에 설치된 정자와 벤치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되고 미관상 좋지 않다는 건의에 대해 신 시장은 “현장을 확인해 상반기 안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임시 운영 상태가 지속되며 통행 안전상 위험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 신 시장은 “새로운 터미널 사업자가 면허권을 신청하면 신속히 면허권을 부여해 정상 운영될 수 있게 하겠으며 수시로 점검해 대형 버스 주차, 공회전 및 통행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매1동·이매2동·야탑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에 따른 청사 신축 요청에 대해 신 시장은 “이매1동과 야탑2동은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분당이 조성된 지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행정복지센터가 많다”라며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청사 노후 정도, 협소도, 인구수,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탄천 화장실을 늘려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탄천

화장실을 전수 조사하고 추가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장에게 바란다”라는 휴대전화 문자 소통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적극 소통할 것을 강조하며 현장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화번호를 전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날 인사회를 마지막으로 4차례에 총 3700여 명의 시민과 만나 소통했다.

김범상/기자

**강릉 9경 9미** [장흥 대표 볼거리·먹거리·살거리]

**9경** 장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  
편백숲 우드랜드,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보림사, 천관산, 소등섬, 제암산, 선학동마을, 탐진강, 정남진 전망대

**9미** 꼭 먹어봐야 할 장흥 별미  
장흥삼합(한우+표고버섯+키조개), 매생이탕, 된장물회, 하모사부사부, 키조개요리, 갑오징어 회·떡찜, 황칠백숙, 굴구이, 바지락회무침

**9품** 자연이 선사한 특별한 선물  
표고버섯, 햇개, 무산김, 친환경쌀(아르미), 청태전, 황칠, 매생이, 한우&육포, 낙지

# 전남도, 지역상권 이끌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 청년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위해 '로컬' 잠재력 주목

전라남도는 지역 고유 자원으로 골목상권 발전을 이끌 유망 업체를 육성하는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와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자원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로컬'에 주목하고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사회의 가치관과 소비트렌드가 가치와 개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로컬'로 일컬어지는 '지역의 고유성'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강릉 테라로사·보헤미안, 양양 서퍼비치 등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로 발전해 지역 상권과 경제를 주도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은 선박을 정박시키는 닻(앵커)처럼 상권 발전의 핵심이 될 유망 업체의 성장을 집중 지원해 지역 상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4년 전라남도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사업**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원

모집대상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모집규모 ▶ 00개사

신청자격 ▶ 지역 골목상권의 핵심전도(앵커)로서 성장을 희망하는 전남도의 자립을 희망한 상품 및 공간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금 로컬상권 기반스주구 지원

신청서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abcd@ocel.kr

문의처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본부 창업지원팀 7.051) 981-1937, 1979

전라남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들 지원 대상은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및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 골목상권의 핵심전도로서 성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혁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농도 전남은 풍부한 식품 자원과 다채로운 식(食)문화, 우수한 자연환경 등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전남의 자원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성장해, 글로벌 로컬브랜드를 창출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 순천시, "지역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로 재단 설립으로 지역연결형 의료체계 구축



순천시가 대학 병원의 시스템 역할을 하고 관내 의료 기관이 대학병원 내 각 진료과를 담당하는 '순천형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보건의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로 재단 기금은 우선 순천시 출연금과 기업체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심뇌혈관 치료 등 전문 특화 병원 운영을 위한 장비 확충뿐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 중 꼭 필요한 진료과이지만 재정이 어려운 곳에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로 재단은 현재 전라남도와 사전협의 단계에 있으며,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설립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시는 공공보건의로 재단이 민·관 공동 대응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소아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정치력 등이 협력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2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 소아

환자 진료로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시민들뿐 아니라 광양, 여수 등 타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다.

이 두 병원에서는 고위험 산모 관리도 하고 있다.

또한, 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진료가 되지 않아 광주 등 원거리 병원으로 가야 할 뿐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등도 심각하다.

시는 중증 소아에게 24시간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순천형 소아응급실'도 내년 3월 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는 지역 내에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은 치료와 함께 재활이 중요하며, 전문적으로 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시는 정부, 전라남도, 지역내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재활 전문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의대 설립까지 정부가 승인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 병원을 하나로 묶어 대학병원처럼 운영하는 순천형 지역연결형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으로 새로운 공공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함평군,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찾습니다...내달 2일까지

## 마을당 3년간 총 1,500만원 이상 지원

전남 함평군이 2024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2일까지 받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는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깨끗하고 아름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 화합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마을 가꾸기 특화사업이다.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해마다 500만 원씩 3년간 총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우리 군은 올해 신규 35개 마을을 포함하여 124개 마을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내달 2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군에서 자체 검토 및 우수사업 계획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2월 중 최종 사업 참여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해 함평군에서는 134개 마을이

참여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자치를 실현했으며, 그중 5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전라남도로부터 200만 원의 추가 사업비와 우수마을 현판을 수여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이상의 함평군은 "주민 주도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



업이 마중물이 되어 타 마을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달빛어린이병원은 2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 소아

# 남원 세계를 품다!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30일 남원스위트호텔에서 '남원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개최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7개 가야고분군은 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 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날 행사는 남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지역민에게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자 개최됐다.

기념식 행사는 남원 가야고분군의 비전인 '남원 세계를 품다'라는 표어를 켈

리그래피 연출로 화려하게 수 놓으며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등재결과보고, 축하영상, 유공자표창, 등재선포행사로 진행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기념식에 직접 참여하여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직접 지역민에게 설명하였고,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정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여해 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축하를 나눴다. 다양한 축하공연과 지역민의 참여로 등재 기념식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우리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전승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시민에게 약속했다.

이남출/기자

# 강진 어린이 놀이시설, 아동들과 함께 만들어요!

## "대형 정글짐 등 특색있는 공간 필요" 의견

강진군은 지난 25일 레오808카페에서 강진군 아동참여위원회 회의를 열고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정책 뿐만 아니라 강진군의 모든 사업에 어린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초등학생 14명으로 구성·위촉됐다.

이날 회의는 참여위원회 모집 당시 제안한 정책 중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제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펼쳤다.

강진군은 어린이 놀이터 46개소가 설치돼 있지만, 어린이집·아파트·학교 내 놀이터는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놀이기구 또한 다양하지 못해 이용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한 학교 운동장 개방으로 많은 군민들이 함께하는 점은 좋으나 정작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속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윤호/기자

부족한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강진군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대형 정글짐·회전놀이기구·바닥을 활용한 놀이문화 등 특색있는 놀이공간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놀이터 설치, 먼 단위 문화회관 및 학교 강당을 활용한 프로그램, 방학 중 실내체육관 개방, 유아숲 내 질린인 설치, 그리고 대기시간을 줄이고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놀이터 내 열린책장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오정숙 군민행복과장은 "동성사이공원 놀이터 및 고려정자박물관 플레이셀라든, 도암 석문공원 놀이터를 비롯해 올해 12월 완공 예정인 맘편한센터 건립 등 강진군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강진만의 이색적인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윤병태 나주시장, 갑진년 주민과의 대화 성료... 애로사항 383건 수렴

## 찾아가는 마을좌담회 이어 시민직소상담실·바로문자서비스 도입

윤병태 나주시장이 주민들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민원 해소와 살기 좋은 행복나주를 향한 각계각층 의견을 경청하고자 진행한 2024년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9일 봉황면을 시작으로 25일 왕곡면까지 읍·면·동 20곳을 순회하며 진행한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과의 대화는 총 11일 일정으로 오전·오후로 나눠 하루 2곳 지역에서 진행됐다.

대화 현황에선 2024년 주요 시정 방향 및 시책 설명, 읍·면·동정 보고 시간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최소화하고 주민과의 대화, 질의응답 시간을 최대한 확보했다.

윤 시장은 대화 당일 출근 첫 일정으로 사전 검토회의를 주재하며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읍·면·동별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시정 분야별 주요 성과, 올해 시정 방향 또한 단순 나열식이 아닌 주

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설명하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주민 건의·애로사항은 총 383건으로 읍·면·동별 평균 19건의 의견이 제안됐다.

소관 국별 통계 건수는 마을 안길 및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개발사업, 버스노선·주차장 등 교통을 담당하는 안전도시건설국이 263건(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광문화환경국(11%), 행정복지국(8%), 미래전략산업국(7%), 농업기술센터(4%), 보건소·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국민 여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앞서 나주시는 영산포 지역에 36홀, 남평 드를섬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며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 406건 처리사항 중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과 더불어 여

건의 미비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 현황을 설명하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애로사항 처리계획 보고회 개최, 당사자 간 1:1 최종결과 안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매달 1회 추진해왔던 찾아가는 마을좌담회에 이어 올해부터 문자 시스템을 활용한 바로문자서비스와 민원실에서 직접 의견을 듣는 시민직소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단 한 건도 누락 없이 적극 검토하고 시

민의 안전한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시급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 사업의 경우 관련 기관 간 협의, 정치권, 사회단체 간 협력을 통해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화자리에서 미처 말씀하지 못한 애로사항은 찾아가는 마을좌담회와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시민직소상담실, 바로문자서비스 등 주민들과의 수시 소통 체계를 마련해 일상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어려운 곳은 더 살피고, 다함께 활기 넘치는” 설 명절 대책 추진

## ‘민생지원’ ‘지역경제’ 등 도민체감형 4개 분야 15개 과제 중점

전북특별자치도는 보다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 등 생활물가 안정대책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소외·취약계층 돌보는 나눔문화 확산, 재해·재난 대응 등에 역점을 둔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30일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설 명절은 ‘어려운 곳은 더 살피고, 다함께 활기 넘치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설 연휴(2.9~2.12) 기간 중 종합상황실(재난·재해 대책 등 7개반)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3년 초 5%에서 출발한 소비자물가가 올해 들어 3%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이시기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고용·물가 개선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민생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을 비롯한 귀성객들을 위한 특별교통대책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각종 편의지원과 명절 기간 한파·폭설, 화재 등 재난·재해 안전사고와 감염병 등에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 걱정없는 지역경제  
명절 연휴 기간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며 설 물가동향 파악,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을 집중 점검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할 계획이다.

① 전방위적 물가 및 수급 안정관리  
연휴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 운영과 설 성수품 품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가격 표시제 점검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으로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최소화하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도청 주무과장으로 구성됐던 시·군별 지역 물가책임관을 실·국장급으로 상향하여 14개 시·군의 물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6대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 파악 등 보



다 강력한 물가안정관리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핵심 성수품 16종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하고, 상반기 인상 예정인 상수도료와 쓰레기봉투료를 제외한 지방공공요금 5종(시내버스료, 택시료,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도시가스료)에 대해 14개 시군과 동결을 원칙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②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촉진, 지역우수상품 판매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올 6월 30일까지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확대 신규 특례를 적극 홍보하고,

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주공, 익산 북부·매일 등 14개소를 포함한 전통시장 주차하용을 상시·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도, 시·군, 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민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를 현행보다 50만원 상향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작년 6개소에서 12개소로 구매처를 확대하여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1인 최대 2만원

또한, 김제, 순창, 고창 3개 시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하고 및 할인을 확대 행사와, 지역사랑 상품권 구입,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 부정유통 근절 홍보를 통해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전통시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주차 허용 구역(상시 14개소, 한시 1개소)을 확대 추진한다.

도내 농특산물, 가공품 등 우수상품 소비촉진을 위해 전북생생장터 등 온라인에서 149개 업체의 우수제품을 최대 45% 할인판매하는 등 지역 우수상품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③ 지역 관광 활성화 도모  
2월 여행가는 달 운영으로 도내 5만 원 초과 숙박시설을 온라인 예약 시 3만원 할인권을 제공하고, 전통투어패스 할인(20%),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10~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인증샷 이벤트 등 다채로운 할인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전국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등 근로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지역 참여형 근로자 휴가지원 프로그램에 전북여행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 5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명절 연휴기간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방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할인과 즉시환급형 사후연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등 외래관광객 소명 편의제공과 14개 시·군 주요 문화시설과 관광지 등 개방을 통해 여행자를 위한 편의지원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2. 함께하는 민생지원  
보다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함께

살피고, 도민의 민생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따뜻한 온기나눔을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①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 강화

저소득층 명절지원사업, 취약계층 위문 격려 등 저소득층(2,660세대) 및 사회복지시설(330개소)을 대상으로 현금과 쌀, 위문물품 등 335백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 결식 우려 독거노인(2,200명)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드실 수 있는 명절음식(떡, 전 등)을 지원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으로 연휴기간 이용 시 평일요금을 적용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② 소외계층 보살피는 온기나눔 문화 확산

무엇보다,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고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책을 중점 시행한다.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가정(중위소득 120%이하 무료)을 대상으로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 아동 돌봄이 파견 활동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상시 발굴 운영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소외감 경감 및 정서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시행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식료품 지원, 결식아동에게는 급식카드와 도시락 지원, 위기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임시보호소 긴급지원, 상담, 의료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명절을 맞아 각종 재난·재해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온기나눔 확산을 위해 시군 자원봉사센터들 중심으로 집중 자원봉사 기간을 운영하며, 환경정화 활동, 명절 선물꾸러미 전달, 전통시장 특별순찰활동, 독거노인 한파용품 전달 등 온기나눔 범도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29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390억원을 맞춤형 지원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적극 해소 하고, 명절 전후 약 1개월 동안 소상공인 등 특례보증 지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표준처리 일수를 7일에서 3일로 신속 단축하여 운영한다.

또한, 지난해 전북자치도에 임금체불 신고건수는 7,866명, 체불액은 423억 3천만원으로, 고용부와 함께 업종별 임금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체

불 실태점검으로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체불 예방 홍보를 위한 전광판 표출 등 명절 기간 체불 청산·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불편없는 편의지원  
도민들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쾌적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 확충, 지방도와 고속도로 주변의 포트홀,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중점 정비 등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가동·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서비스도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④ 명절 특별교통대책 가동·지원  
연휴기간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속버스(5일간/100대(전국)), 시외버스(1일 10대)를 확대 운영하고, 철도는 5일간 73회(호남선 31, 전라선 32, 장항선 10)를 늘려 운행하며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는 시군별로 자체 증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IC 등 6,869km를 대상으로 포트홀과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등을 집중 점검하고 보안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여 이용객들의 교통안전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개방(34,871면)하고, 도·시군 합동(20개반 42명)으로 시군 터미널(30개소)과 혼잡지역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점검, 불법주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난폭운전 근절, 줄음운전 방지, 상습정체구간(37개소) 안내 등 교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특별수거체계 구축 및 환경정비를 위해 각 시군에 기동청소반 운영과 명절 전·후 대형소의 날 등을 운영한다.

또한 15개소 30명(1일2명)으로 구성된 환경요양사대비상황실을 운영하여 오폐수 오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상황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⑤ 차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연휴기간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진료상황실(도 및 시군 15개반 60명)을 운영하며 기관별 비상연락망과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21개)을 지정·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366개)과 약국(551개)을 지정해 차질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모임과, 해외여행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없는 안전한 명절에 대비한다.

4. 걱정없는 안전대책  
도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보다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재해·화재 등 각종 상황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비한다.

⑥ 분야별 비상상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96명)을 운영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도내 전 소방관서에서는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119 구조·구급대 긴급 대응태세 구축, 가축전염병 대응반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명절기간 발생할 유사상황에 대응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과 감염병, 산불, 화물집단운송거부 등 분야별 긴급대응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해 사회·자연 재난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대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효 등에 대비하여 13개 분야 협업부서와 17개 유관기관 및 시군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관리시스템 가동으로 도·시군간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겨울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⑦ 취약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  
터미널·전통시장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도, 시·군간,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건축·전기·가스·소방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화재예방을 위해 전통시장(59개소)과 다중이용시설(물류창고, 운수시설, 의료시설, 고시원 등) 등을 대상으로 안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지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지도를 하고, 농촌마을 찾아가는 마을회관 긴급 화재예방·대피 교육(5,301개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 명절 기간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과, 자동화산 소화기 설치 등 보급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⑧ 민생안정 대책 발표 등 집중 홍보  
도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전북생생TV, 블로그, 전광판 등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달라지는 점 등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메시지를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날까지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명절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한 뒤 처음 맞는 명절이라 의미가 남다르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먼저 살피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일반형) 직무교육 실시

## 행정도우미 65명의 23개 배치기관 담당자 참여

목포시가 지난 29일 '2024년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일반형) 참여자 직무교육'을 갖고 장애인일자리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참여자와 배치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사업규정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법,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인식개선 등 기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일자리아사업은 미취업장애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직업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취업역구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는 올해 예산 43억6천7백만원을 투입해 동 주민센터, 목포장애인복지관, 명도복지관 등 7개 기관에서 장애인일자리아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인원은 402

명으로 일반형65명, 복지형 275명, 특화형 20명, 전남형 42명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생활안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로 힘찬 첫걸음 내디뎈

## 보성의 활력을 ‘함께(We) 여는 열쇠(Key) 보성키위(Kiwi)’

보성군은 고품질 키위 생산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70억 원을 키위 산업에 투자하는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보성 키위의 명성을 널리 알리는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9일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단이 필요요 채동선읍약당에서 ‘보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완료되면 비파과 선별시스템을 갖춘 보성키위 거점센터가 조성되고 표준화, 규모화된 유통시스템과 보성키위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성키위의 안정적인 전국 유통망이 완성된다.

또한, 민간 조직을 활용한 신활력추진단 및 활동가 조직을 양성해 보성키위의 홍보·판촉(마케팅)과 관련한 아이디어 사업을 지원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보성군민을 비롯한 김철우 보성군수, 임용민 보성군의 회 의장, 키위 재배 농가 대표, 생산자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기술·가공·유통 분야의 교육과 전문 지원 인력을 통해 참여자를 지원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군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특히, 초청 강사로 키위산업 분야의 전문가인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조윤성 박사, 김제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김



윤희 사무국장이 차례로 나서 키위 유통환경과 산업 발전의 문제점, 보성키위 발전 방향, 청년 농부 활동 사례 등을 발표했다.

보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강원석 단장은 “보성키위가 보성의 활력을 함께 여는 열쇠라는 의미로 ‘키·위 투게더’ ‘Key-We Together’라는 슬로건을 설정했다.”라며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보성키위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차지하는 ‘보성키위’가 지난 2022년 농산물 지리적 표시 제111

호로 등재됨과 동시에 농촌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을 시작했다.”라며 “보성키위의 생산시스템 혁신, 생산 농가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성군이 대한민국의 키위 중심지로,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보성키위의 유통망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주)농협유통과 업무협약 체결한 바 있으며, 보성키위의 세계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11월 ‘제3회 보성키위축제’를 개최 예정이다.

최원영/기자

# 경상북도 “지역 중소 물기업 판로개척”에 앞장서

##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워터밸리 비즈니스 워크 현황리 개최 물분야 신기술 소개 및 우수 기자재 전시, 구매상담회, 세미나 등



경상북도는 도내 물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기술개발, 지역 중소 물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24워터밸리 비즈니스 워크’를 개최했다. 도는 30일부터 31일까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

한 경기침체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물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2024 워터밸리 비즈니스 워크’를 대구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한국물기술인증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훈 환경부 차관, 추경호, 임이자, 이인선 국회의원,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국장, 김세진 K-water 본부장, 안병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여해 지역 물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했다. 주요 행사로는 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 대구경북 소재 물 산업 분야 기업의 신기술 소개와 홍보를 위한 오픈스테이지, 전시·홍보부스와 물관련 기업과 구매기관의

맞춤형 구매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 물산업 정책마련과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는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법 추진 방향, 환경부 신기술 인증증 절차 및 사례, 한국물기술인증원 기관 소개 및 사업 설명,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제도 안내와 최근 주요 이슈, 물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소개 등 다양한 발표가 있었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 지역 물기업이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과 지역기업이 힘을 합쳐야 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역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이번 행사가 물 분야 신기술과 우수사재를 소개하고 물 관리 정책 발전 방안과 중소 물 기업 판로개척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기업애로 현장 어디든 달려가 해결한다!

## 찾아가는 방문상담, 관계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등 현장소통으로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해결 총력을 다해 '23년 178건 해결

대구광역시는 경기 부진에 따른 자금난 심화, 청년들의 중소기업 구직기피로 인한 인력난 가중 등 지역기업들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기업애로119 방문상담, 관계기관 합동 현장간담회 등 기업 밀착지원 활동을 추진해 기업애로를 사전에 적극 발굴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구·군, 중소기업기업청,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 부서·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지원정책 연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자금·마케팅·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 178건의 기업 고충사항 해결에 앞장섰다. 먼저, 대구시는 인터넷 누리집(https://onestop119.daegu.go.kr), 전용전화(803-1119) 및 기업애로 해결 전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대구기업애로 119)’ 등을 운영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기업현장 방문상담을 거쳐 업체별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심층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노무·세무·기술개발 등 관련 전문가 115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 자문단’ 소속 위원을 기업과 1:1로 연결해 전문 컨설팅도 지원해 '23년 현장상담을 통해 총 151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 예로, 달성군 다사읍에 소재한 엠케이시틸(주)은 철강·강판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철판 절단용 CNC 장비에 설치할 자동멈춤장치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대구기업애로119 현장상담 후 품질관리 분야 기업애로 자문위원의 지도를 통해 공장의 생산설비와 스마트공장보급 확산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을 돕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시를 비롯해 특별지방행정기관, 기업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기업 애로해결 및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애로사항과 규제에 대한 범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5차례의 합동간담회\*에서 64건의 복합애로·규제 사항을 발굴해 27건을 해결했으며, 나머지 26건도 현재 처리 중이다. 윤근수/기자

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유해 물질 배출 예상량이 환경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입주를 제한한다는 환경관리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해 건의했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해당 기준의 예외 조항을 반영해 기업이 입주자격을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지침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도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에는 기존 산업단지 위주에서 산업별, 직능기관·단체별 현장간담회 대상을 확대해 실질적인 기업 경영상의 장애물들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오는 3월에는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과 함께 지역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5월에는 로봇기업들을 만나 현장중심, 기업중심의 소통 회의를 계속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3월 12일(화)~13일(수) 이틀간, 엑스코 서관 3층에서 개최 예정인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는 기업인과 지원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의 애로 상담뿐만 아니라 내수·수출·인력채용·지원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종합지원 행사로, 중소기업기업부가 새로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국내외 VC(벤처캐피탈) 투자설명회와 지역 대학 채용설명회, 특성화고 채용상담회 등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채용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원스톱 종합지원 행사로 추진한다. 윤근수/기자

# 전국 최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 안전도시 부산 기틀 마련한다!

부산지역 재난안전산업 선도·육성을 위한 기술협력 거점이 될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구축돼 본격 가동된다. 부산시는 지난 30일, 동래구 수안동 명륜배수펌프장 일원에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동래구 수안동 666-10)’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동래구청장, 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내빈소개 ▲축사 및 기념행사 ▲센터 참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소하는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재난안전 분야의 과학·산업화를 이끄는 기술협력과산업육성의 거점으로서 연구개발과 기획·지원 등 재난안전산업의 총괄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구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 건립됐으며, 지상 5층, 연면적 1천972제곱미터(m²) 규모에 총사업비 207억 원(국비 60억 원, 시비 114억 원, 특고세 10억 원, 기타 23억 원)이 투입됐으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그간 재난안전산업 지원 사업을 주관해온 부산테크노파크가 맡는다. 풍부한 지역사업 경험과 역량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시는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추진했고,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부산테크노파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는 앞으로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틀 마련을 목표로 ▲산학연 기술협력, 인력양성 등 재난안전 기업지원 총괄 거점 역할을 하며 ▲시험·연구장비 사용 ▲재난안전 기술 연구개발(R&D) 사업기획, 재난 유형 특화제품 기술의 성능시험, 평가인증 등 기업지원·육성 프로그램 ▲편의 시설 등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인프라 구축(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활성화, 클러스터 구축, 진흥시설 유치) ▲산업육성(연구개발 활성화 및 기업지원, 테스트베드 시범도시 추진, 기

업 해외진출 지원) ▲산업생태계 활성화(한국재난안전협회 설치(본부유치),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 5개년(’24~28년) 종합계획’에 기반한 지역 재난안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개소로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재난안전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선도해왔다”라며 “이번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신설로 부산의 재난안전산업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안전도시 부산이 대한민국 재난안전산업의 메카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고추 건조기·세척기 지원사업 추진

## 윤경희 청송군수, “이밖에도 부직포, 멸칭비닐 등 고추 생산 전반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품질 고추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

청송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청송고추의 경쟁력 제고와 고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2024년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총 사업비 1억2천만원(군비 50%, 자부담 50%)으로 관내 고추재배농가에게 고품질 건조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건조기 20대와 청결한 건조기 생산을 위한 세척기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당 지원 단가는 건조기 400만원, 세척기 2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실경작하는 고추재배농가이며,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2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은 농가들이 고추 건조기를 사용하면 노지 건조보다 건조시간을 줄여 일손을 덜어줄 수 있고, 깨끗한 세척고추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고품질 건조고추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은 청송 고추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 등에 효과가 있어 희망농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부직포, 멸칭비닐 등 고추 생산 전반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품



질 고추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희망의 여정 함께합시다!” 영양군, 군민과 소통의 시간 가져

## 오도창 영양군수, “민선8기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영양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히

영양군은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30일부터 3일간 일월면을 시작으로 6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휴수동행(携手同行)을 신년화두로 군민화합의 의지를 담아 각 읍·면의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군민대표에게 군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포함한 2023년 주요성과 설명과 영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4년 군정 주요 역점사업을 오도창 군수가 직접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024년 주요핵심 추진 분야는 경쟁력 있는 농업, 미래지향 ‘부자 농촌’, 사통팔달, 안전한 ‘도로망 확충’, ‘생태관광, 생활인구 유입’ 등 농업, 교통, 관광 분야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근수/기자

또한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마을의 불편한 점을 적극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하여 주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모든 정책은 군민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며 “민선8기 행복한 변화 희망찬 영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영양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첫 회의, 지방정주시대 본격 가동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2024년도 제1차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의결 안건 5건과 보고 안건 2건을 심의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정주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가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 등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경상북도분권위원회와 경상북도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합해 지난해 10월 30일 새롭게 구성하고 경북도립대 김상동 총장을 위원장으로 지명해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의결 안건 5건과 보고안건 2건을 논의하였는데 의결 안건은 ①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안) ②2024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 ③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안) ④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계획서(안) ⑤경상북도 경계 지역 기본계획(안)과 보고 안건으로 ⑥기회발전특구 추진상황 ⑦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1호 안건인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분과 구성(안)은 지방분권분과위원회와 균형발전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지방분권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자치경찰, 교육, 안전, 사회복지, 외국어 인 정책 분야 등을 담당하고, 균형발전 분과위원회는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업, 해양수산, 도로·교통·건설 분야 등을 담당한다.

제2호 안건인 2024 경상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안)은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2호 안건인 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또한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2024년도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8개 세부사업에 약 1,00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3호 안건인 2024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시행계획 또한 2023~2027년까지 5개년 계획인 대구·경북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2024년도 실행계획으로 5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18개 세부사업에 약 1,00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4호 안건인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운영계획서(안)는 지역 주제(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특구로 3가지 신청유형\*이 지정되어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3유형인 경북북부형(안동·예천) 1개소와 1유형인 포항, 구



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울릉 7개소 총 8개 지역에 시범지역을 신청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제5호 안건인 경상북도 경계 지역 기본계획(안)은 「경상북도 경계 지역 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계하는 타 시도 및 도내 시·군 간 경계 지역의 단절적 격차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2024~2028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지역별 연계 사업계획은 ①지역개발 및 정주여건 분야, ②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③문화관광, ④사회복지 및 공동체, ⑤농업·산림 및 환경, ⑥도로·교통 등 총 6개 분야에 60개 사업을 발굴해 심의했다.

제6호 안건인 기회발전특구 추진 상황은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 결과발표를 올해 중순 이후에 연기함에 따른 산

업부의 기회발전특구 추진 목적, 대상 입지, 추진 방향, 지원 내용, 권고사항, 지정신청 일정 등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제7호 안건인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변경 계획(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기 지정된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본사항을 보고 받고 변경(안)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동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공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시대의 완성을 통해 의료격차, 문화 격차,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위원회가 중추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사직3동, 2023년 이웃돕기 후원자 262명에게 감사서한문 전달

부산 동래구 사직3동은 지난 29일, 2023년 이웃사랑에 적극 동참한 262명의 후원자들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직3동은 서한문을 통해 후원(금)품은 지역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되었으며, 희망 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각종 복지사업에 사용된다고 전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를 표했다.

심인자 동장은 “사회·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어 준 따뜻한 정성과 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감사서한문

안녕하십니까? 사직제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웃돕기 후원자님께 인사드립니다.

사회·경제적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상황에서도 사직3동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정성과 헌신은 후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후원자님의 온정이 담긴 후원(금)품은 홀로 어르신에게는 건강음료 요구르트 제공으로, 식생활 위기가구에게는 따뜻한 한 끼의 식사로, 저소득 아동 양육가정에는 부모교육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맞춤형 신발 지원 등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사직3동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해주고 계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원자님과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사직제3동 행정복지센터·사직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안동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 대응

## 바이오 관련 기관(기업)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자문단 회의 개최

안동시는 1월 29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유치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방안/ 타지자체와의 차별화 전략 도출, 지역이 가진 강점과 기반을 토대로 바이오 특화단지를 육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였고, 전국각지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첨단전략 특화단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개 분야에 대해 전국 7개 지자체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바이오 분야를 지정할 계획이다.

바이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되면 입주기업에 대해 국·공유재



산 사용자, 대부로 감면, 각종 인허가 사항 신속처리, 세제혜택 지원, 일반공업지역 대비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정부 R&D 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이 제공되는 만큼 안동시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바이오 백신산업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안동시는 지난해 개최된 국제백신포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

지 지정을 위해 질병청-경상북도-안동시-SK바이오사이언스-국제백신연구소-안동대학교-안동과학대학교-

가톨릭상지대(이하 8개 기관)와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앞으로 안동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국내외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첨단전략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경 경제행정국장장은 “오늘 모인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격적으로 대응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산·학·연·관의 혁신 역량을 하나로 결집,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 제5기 봉화군 마을세무사 본격 활동 시작

봉화군은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이상길 세무사(세무회계대리)는 지난 4기에 이어 연임되어 2025년까지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군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만,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

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누리집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가능하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생활 속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목적 달성 소송 취하

울진법률민대책위원회 장유덕 외 309명 등은 지난 2021. 5. 28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 결정 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의 목적 달성 됨에 따라 2023. 11. 7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 1. 30 취하 결정이 되었다.

울진법률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건설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취하 결정 하였다. 이에 앞으로도 울

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고 울진군 의회 장유덕 의원은 “참여와 응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남해군, 원활한 국·도비 확보로 지방상수도 공급 착착

## 2023년 17개마을 1,224세대 공사 완료 올해 상반기 12개마을 추진...내년까지 전 지역 공급예정



남해군이 원활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지하수나 계곡물 등을 이용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해 온 마을에 차질없이 지방상수도 수도물을 공급함으로써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지하수 및 계곡수를 사용해 온 남해읍 심천마을 외 17개마을(1,224세대)에 양질의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 미공급 마을의 경우 갈수기시 물부족으로 제한급수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해 왔다. 또한 비소 및 석회석 등이 검출돼 긴급하게 비상급수를 시행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남해군은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2022년부터 생활용수개발사업 140억 원, 맑은물 공급사업 12억 원을 투입해, 송수관로·배수관로 56km, 급수관 10km를 매설했다.

올해는 고현 갈화마을을 시작으로 7개 읍·면 12개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과 맑은 물 공급사업(지방상수도 전환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미 급수지역을 제외한 모든 남해군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해군은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통해 물복지 실현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주민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고 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 하겠다는 군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더 현정행정, 적극행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 영주시, “3월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 경북도내 주민등록 농어업인 대상...온오프라인 신청 병행 5월과 10월에 30만원씩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영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온라인(‘모이소 경상북도’ 앱)과 오프라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접수한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이면서 도내에 주소지를 두며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다만,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3월 15일까지 신청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4월까지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 원씩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농협 등 신청인이 선택한 지급처에서 지급한다.

**3월 15일까지 접수마감**

**2024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농업환경조성! 농업공익가치보장!

신청대상 2022.12.31.까지 경영체등록, 같은날(22.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영농 거주자

접수처 읍면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년도 직불금 수령 영수증 보유 필수)

영주시 농업경영과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올해부터 연접지(영월군, 단양군)에서 농사를 지으며 영주시에 거주 중인 농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민 수당은 2022년 처음 도입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정규자/기자

# 경북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 신청은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해야

경상북도는 2024년 경상북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를 한다.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는 총 4억 2,000만 원이며 29일 현재 경상북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사회복지 ▲사회통합 ▲시민사회 ▲자원봉사 ▲민생경제 ▲문화관광 ▲생태환경 ▲평화증진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 10개 분야

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1개 단체에 1개 사업,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이달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받아 3월 말 경상북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 까지이다.

민간 보조사업 추진 시 공모 신청·교부·집행·정산 등의 모든 과정이 전

산화됨에 따라 해당 공모사업은 기존 우편 접수 및 방문 제출이 아닌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으로 신청·접수한다.

사업설명회는 별도 개최 없이, 2월 5일 영상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영상자료에는 지원절차,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작성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호기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최종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www.gb.go.kr) 공지사항(소통참여→민간단체/NGO→공지사항)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템e)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새마을봉사과(054-880-2904)에 문의가능하다.

윤근수/기자



## '2024년 상생과 발전의 부산 자원봉사 온기나눔'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2024년 신년인사회 개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경욱)는 지난 29일 BPEX 컨퍼런스홀 D에서 부산시, 구·군자원봉사센터 및 지자체 관계자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생과 발전의 부산 자원봉사를 위한 '2024년 부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봉철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김호진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 등이 참석하여 부산시, 구·군 자원봉사센터 신년인사회를 축하했으며, 2024년을 통해 부산 지역 자원봉사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신년인사, 2024년 주요 역점사업 안내, 온기나눔으로 하나되는 부산을 위한 떡케이크 컷팅식, 덕담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었으며, 2024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 자원봉사대회'의 성공과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플랫폼의 활성화를 다짐했다.

박경욱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2024년, 온기나눔으로 하나되는 부산을 위해 마련한 신년인사회를 통해 부산이 자원봉사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며 "그 중심에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개최와 블록체인 기반 자원봉사은행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 외무상 망언 규탄 성명

경북도는 지난 30일,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경상북도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가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지난 30일에 열린 정기국회의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왜곡된 영토 인식에 입각한 부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외무상의 매년 이어지는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 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 임

**일본 외무대신의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

1. 일본 외무대신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의 영토 주권에 대해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에 대해,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전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3. 일본은 매년 반복하는 왜곡된 역사인식과 독도 불법 침탈 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결단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30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을 천명했다.  
또한, "일본은 매년 반복되는 역사 왜곡과 독도 불법 침탈 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이고 상생 발전하는 관계 회  
복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결단에 앞장설 것을 촉구" 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경로당“찾아가는 한방프로그램”운영

윤경희 청송군수,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 어르신에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찾아가는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동면 월매리, 파천면 응점리, 주왕산면 좌라리 경로당(3개소)을 중심으로 1월 23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 한방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1:1 맞춤형 건강 상담과 침 시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와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겨울 한파로 인해 신체 활동이 위축

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통 취약지역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방문사업 운영은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한의약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여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물 기업·물 관련 공공기관과의 만남의 장' '2024 워터밸리 비즈니스 워크' 30일 개최

1월 30일~31일 양일간,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기업 50개사 참가 물 관련 제품 전시회, 공공기관 구매담당 100개 부서 구매상담회 실시

대구광역시는 물 기업과 물 관련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2024 워터밸리 비즈니스 워크」를 지난 30일(화)부터 오늘까지(2일간)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함께하는 공공기관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 등이며, 국내 물기업 50개사가 참여한다.

전국 물 관련 전시·상담회 중 올해 가장 먼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물 관련 제품의 전시·발표회, 기업과 구매자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 물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30일(화) 개최식에는 환경부 차관,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며, 물 산업 발전 유공자 5명에게 환경부 장관상, 대구광역시장상 등을 수여한다.

▲물산업 유공자  
환경부장관상은 수도계량기 기술개발로 물관리 유수를 증대에 기여한 일천산업 예용철대표, 대구광역시장 표창은 고효율 펌프 기술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해 에너지비용 절감을 추진한 (주)그린텍 이정곤 대표와 수질측정분야 기술개발로 환경기초시설 수질 오염방지에 기여한 에이티티(주) 김재철 대표가 수상한다.

▲물산업 전시회 및 제품 발표회  
전시회는 펌프, 수도관, 급수전, 유량계, 제어장치, 계측기 등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 물 관련 기업 50개사의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며, 제품 발표회는 9개 기업이 참여해 기술개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품별 특징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계획이다.

▲구매상담회  
구매상담회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각각 진행된다.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정된 공공기관 구매담당 100개 부서 담당자와 50개 기업 간 매칭 상담이 282회 예정돼 있다.

▲세미나  
세미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종제도와 최근 주요 이슈, 물 순환 촉진법 추진 방향, 환경부의 신기술 인·검증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돼 물 기업은 제품 개발과 사업 추진에 도움을 얻고, 관련 기관은 담당업무에 필요한 정

보와 지식을 얻는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 특징  
첫째, 구매 상담 매칭을 확대했다. 지난 해까지 물 관련 관급자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물·폐기물 관급자재, 수질과 대기 측정 장비 등으로 확대했다.

둘째, 참여 기관을 확대했다. 기존의 한국환경공단, K-water,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개 기관 참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추가해 기업의 활로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찾아가는 구매상담회 개설이다. 개설된 구매상담 장소를 벗어나서 수요기관이 관심 있는 기술제품에 대해 전시관을 둘러보며, 제품을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와 협의로 궁금점을 해소하는 찾아가는 구매상담회도 최초로 추진한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 기업과 유관기관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하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물기업이 대한민국과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로 '영양군 사랑' 실천하세요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오도창 영양군수, "올해도 출향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24년에도 계속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고 '담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 등, 기부자는 나눔의 기쁨과 특산품 선물, 그리고 세액공제까지 받아오는 '일거삼득'제도

올해 영양군에서 제공하는 담례품은 기존 고춧가루, 전통장류 등을 포함해 농산물발효액, 건나물, 장아찌류, 버섯류 등을 추가해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영양군은 24년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취약계층 세택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신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세택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세택서비스를 제공해 피부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공공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작년 한 해 출향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군민들을 위해 취약계층에 세택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며 "올해도 출향인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 경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 1.30~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대 행사 참여  
주낙영 시장 2월 7일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갖고 상인들 격려  
“전통시장 장보기에 적극 동참, 지역 내 소비 진작돼 경기 회복되길”

경주시가 설 명절을 맞아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한다.

시는 이달 30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 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대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고물가 속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2월 5일부터 7일까지는 본청 부서별로 성동·중앙시장에서 실시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본부는 봉황·북정로 등 중심상가 위주로 실시한다.

사업소와 읍면동은 이달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부서별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또 유관기관과 자생단체도 참가를 독려해 명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안정화 기여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특히 주낙영 시장은 2월 7일 중앙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갖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응원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서민들의 생활 속 필수 카드인 경주페이로 2월 한 달 동안 캐시백 혜택 한도를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사용한도는 월 40만원으로 매월 동일하다.

더불어 지류형(5%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모바일·카드형(1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연중 확대한다.

주낙영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적극 동참해 지역 내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 군위군,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안전점검 실시

설 명절 대비 안전한 전통시장환경 조성  
김진열 군위군수,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혀

군위군은 최근 잇단 전통시장 대형화재로 인해 설명절을 앞두고, 29일 군위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이찬균 부군수 중심으로 강북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군위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탐지 자동설비, 비상유도등, 소화기비치 등 소방분야 ▲가스용기 관리, 안전장치 점검, 호스 누출여부 등 가스

분야 ▲전기누전차단기, 배전반 등 전기분야에 대해 세밀한 확인과 점검 등을 통해 경미한 사항이 현장에서 바로 잡히고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 설 전까지 빠른 시일 내 보완할 방침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화재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문제다.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영덕군, 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민원상담실’ 운영

법무·건축·세무·지적 전문 분야 상담위원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덕군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도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건축, 세무, 지적 4개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영덕군은 지난 2020년 법률과 건축, 지적 분야를 시작으로 관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을 통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법률 조언을 제공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세무 분야를 추가했고, 올해는 재무과의 마을 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제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세무 분야 인력풀을 더욱 보강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일정은 법률 상담의 경우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5시, 건축 상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2~4시, 세무 상담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5시며, 지적측량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민원상담 신청 방법은 법률,건축,세무 분야의 경우 사전 예약으로만 진행

하고, 지적측량은 평일 예약 없이 바로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054-730-6142)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전문 분야는 매우 어렵고 접근성이 낮아 불필요한 피해를 보시거나 의지할 데가 없으신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 무료 민원상담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해 정보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의 든든한 인생 컨설턴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의성군, 농식품부 생산유통통합조직 최종 선정

김주수 의성군수, “이번 결과는 농업인·유통조직·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 시장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제값 받는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의성군은 의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농식품부가 선정하는 2024년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정부의 산지유통정책 변화 발표 이후 채 1년이 안되는 기간만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여 얻은 값진 성과다.

생산유통통합조직은 기존 통합마케팅조직의 외형성장 지향 구조를 뛰어넘어 생산자(조직)와 유통조직의 전속출하관계 구축을 통해 근본적인 마케팅 규모화·전문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조직으로 농식품부가 정한 취급액 조건을 충족하고 3년간의 운영계획을 승인받을 시 농식품부 시행 20개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우선지원 자격을 얻는다.

군은 전속출하 확대를 위해 의성조공·농협과 함께 주기적인 전략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농업인 교육을 통해 품목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생산자조직을 전속출하조직으로 재편한 결과 자두·가지는 전문품목으로, 복숭아는 전

문품목으로의 전환단계인 육성품목으로 하는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선정되었다. 또한 다른 주력품목도 전문품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산유통통합조직 선정은 농업인과 유통조직 및 행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의성군 농업인이 제값 받는 유통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제52회

# 강진 청자 축제

The 52nd Gangjin Celadon Festival

2024. FRI-SUN

## 2.23.-3.3.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 청자 축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응원하러 왔어요!

## 강원자치도, 중국, 일본 등 단체 응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원특별자치도가 1월 31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함께하는 스노우 페스타 글로벌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남자 아이스하키 동메달전) 경기관람 및 개최지 투어 상품을 기획, 중국 수학여행단체, 중국 유소년 아이스하키클럽, 글로벌 20여개국 개별관광객, 해외여행업계 팸투어단 등 680명이 함께 단체관람을 통해 열띤 응원을 하는 한편, 겨울축제를 즐기는 외국인 대상 관광상품이다.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은 올림픽 경기단체관람과 함께 개최 도시 강릉 오죽헌, 중앙시장, 평창 스키리조트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해외여행업계 팸투어단은 향후 한국방문 관광객 모집을 위한 포스트 강원2024 올림픽 개최 도시 투어 상품개발에 나선다.

특히, 이날 단체관람에는 일본 오사카관광국 미조하타 히로시 이사장이 한국방문 100번째를 기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외국인 단체관광객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계관광 브랜드



인 '강원 스노우페스타' 외국인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으로 겨울철(눈·스키·축제) 즐길거리와 한류 관광콘텐츠를 접목한 동계스키 특화상품(편 & 고고스키), 외국인 개별관광객 대상 수도권과 올림픽 개최지 및 시군 겨울축제장을 연결하는 스노우 G-서를 투어, 한류촬영지 동계상품(춘천 남이섬 눈썰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트립닷컴과 동계상품 판촉프로모션,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항공사 공동 말

레이시아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주요관광지 취재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공개최와 겨울왕국 강원특별자치도의 매력을 알리고 글로벌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다채롭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아산시, 관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강사 모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아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공개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모집자격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의 경험이 있고, 아동권리 및 인권교육 등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다.

특히, 사회복지·아동유관 전공자 및 해당 분야 경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그동안 아산시는 2017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주제로 한 '아동권리 교육'

를 실시해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태도를 내재화한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2023년 충남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권리교육 강사 모집을 통해 관내 아동권리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아동권리 증진과 권리옹호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태백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방법으로는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이 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신청안내 문자가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되며 대상자는 문자에 기재된 신청 사이트를 방문해 비대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기술센터(농업과)로 직접 방문하면 되며,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

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업기술센터(농업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지급되므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동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업기술센터 농업과에 방문하여 등록신청 해야 한다.

태백시는 2~4월 간 신청이 완료되면 5~9월까지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 원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 충남도,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돕고 드론공원 만든다

## 도, '2024 토지행정 운영계획' 공유...6개 분야 80개 과제 추진



충남도가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지적·공간정보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을 담은 '2024 토지행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30일 시군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토지행정 운영계획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창의적인 토지행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6개 분야 80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도민 기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지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적관리 10개 과제, 공시지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한 토지정책 13개 과제,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13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도민이 원하는 지적정보 제공 및 주소 체계 고도화를 위한 주소정책 16개 과제, 우리 땅의 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 14개 과제, 드론 활용 기반 구축으로 스마트 충남을 만드는 무인항공 11개 과제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 드론공원 조성, 드론 챌린지(Challenge) 전국대회 등 5건의 신규 과제도 마련했다.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도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거 안심 지원사업이다.

전월세 등 주택 계약이 필요한 청년

층이 부동산 상담을 하거나 집을 보러갈 때 시·군청이 선정한 도내 공인중개사가 동행해 안전한 주거지 결정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은 토지 경계 조정 등에 따른 분쟁과 갈등, 고층 민원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지적·임야도 경계 정비사업은 축척이 다른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계를 일치화해 각종 인허가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에 사용되는 연속지적도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아울러 자체 드론으로 고정밀 항공영상·사진을 제작해 행정에 활용하고 드론 축구·레이싱 등 레저스포츠 분야로 영역을 넓혀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취미로 드론을 즐길 수 있도록 드론공원을 조성하며, 드론 실력을 겨루는 챌린지(Challenge) 전국대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렴한 시군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토지행정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꾸준히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토지행정을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업무 연찬을 통해 미래 변화에도 선제 대응하는 창의적인 토지행정 서비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 민생현장 찾아 목소리 경청 계속

## 30일, 진천군 치매전담요양원, 중앙시장 등 찾아 소통 이어가

김영환 충청지사는 30일 진천군을 방문해 진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 진천중앙시장, 진천산단,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초평호권역 관광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 지사는 2022년 도내 최초로 개관한 진천군립치매전담요양원(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을 찾아 시설 관계자, 문석구 진천부군수 등과 간담회를 열어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분야 증진 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치매어르신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진천 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대목을 맞아 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전통시장을 자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후 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천 중앙시장 상인회장, 임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전통시장 및 원도심 상권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으로 방문한 진천산단에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입주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단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진천군 청소년수련원을 찾아 르네상스 초평호 권역 현장 점검을 하고, 초평호 일원 종합관광 개발계획 및 애로사항 등 진천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천군은 초평호 권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초평호 제2하늘다리 조성사업(출렁다리 L=309m 조성), 농다리 관광명소화 사업(전시관 증축, 먹거리타운 조성 등), 완전히 새

로운 진천 농다리 사업(농다리 폭포 감성카페 조성)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체류형 관광과 전통시장 접촉 등 다양한 복지 정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충북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내 고향 살리고 혜택도 받는

# 의성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와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쉬운 기부 지역사랑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답례품 구입

세액 공제, 답례품 제공

지역 특산품 생산

**10만원 기부 시 세액 공제 100%**  
**3만원 상당 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 기부한도액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 세액 공제 : ~10만원(100%), 10만원 초과~500만원(16.5%)

의성군

# 상주시,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 최대 2,000만원 지원, 위기를 기회로! 소상공인 지원 개시

상주시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상주시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일 때 가능하며, 대상 사업은 음식점 테이블 개선(좌식→입식), 점포 내 영업환경 개선(시설개선, 옥외 간판 교체, 집기·비품 구입), 안전 위생 지원, 홍보비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원까지이며, 자부담 50% 이상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14일(수)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은 2020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간 관내 약 650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 제주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 점검 강화 추진

##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공공·민간)대상,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제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공중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커진 점을 고려해 공중화장실 288개소, 공공개방화장실 77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중심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점검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전 점검 수시화 ▲민간 개

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등이며, 특히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교육을 1월 31일 실시한다.

점검은 제주시 14개·읍면동 26개 부서, 경찰과 협조해 불법 카메라 탐지기 및 불법 촬영 탐지 카드를 활용해 진행하며, 화장실 내 환풍기, 벽면의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경우 현장 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난해 5회에 걸쳐 공중화장실 1,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말했다.

곽권/기자

# 안동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및 시범운영 실시

## 긴급차량에 대한 우선신호 부여로 골든타임 확보

안동시는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등) 출동 시 신호대기 없이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도입한다.

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긴급출동 차량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1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상운영에 앞서 1월 29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관내 긴급차량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통해 출동지에서 목적지까지 연속으로 녹색신호를 받을 수 있어, 화재 출동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 시 경로별 출동시간이 40% 이상 단축되고, 응급상황 대응능력이 월등히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동경찰서 및 안동소방서와 협의하여 긴급상황 단계별 시스템 이용기준

을 설정하고 긴급차량에 대한 출동시간 단축과 동시에 과도한 시스템 이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교통정체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기창 시장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와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긴급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 일시적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배려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 [비대면 신청] 2.1 ~ 2.29. [방문 신청] 3.4.~4.30.



예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비대면 및 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

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이 문자로 안내된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며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인들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 비대면 신청대상자 중 기간 내 신

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농업인들도 기한 내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고령자 주거 특화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노년기 가장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고령자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어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왔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가구 구조 등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방식이 필요하다 보고 어르신 안심주택을 준비해 왔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시는 주로 시 외곽에 조성되던 실버타운·요양시설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을 겪지 않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

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달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용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 등), 3차병원 14곳(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보건기관 28곳(자치구 보건소) 등 총 84곳이 해당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빙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 등 특화시설과 함께 자치구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하여 의료, 건강, 복지 등 지역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까지 전 단계를 섬세하게 돕는 곳으로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어

르신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의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대출한도액 240억 원을 빌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연간이자 4.8억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며,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 경북교육청, 예비 소집 불참 아동 소재 파악에 나서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 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 16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예비 소집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다.

2024학년도 취학 대상 아동 1만 6,961명 중 1만 5,800명이 지난 3일 예비 소집에 참여했고, 1,161명이 불참했다.

예비 소집 불참 아동 1,161명 중 1,145명은 교육지원청,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출 ▲취학유예 ▲연제 ▲해외 출국 ▲가정 내 학습 ▲단순 불참 등의 불참 사유가 확인됐다.

30일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6명 중 15명은 출입국 사실 조취를 통해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명은 가정 내 학습 예정자로 파악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비 소집 불참 아동의 정확한 소재를 조속히 파악할 계획이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3월 입학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파악해 취학 대상 아동이 정상적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학교에서 10Giga 인터넷 가능해진다.

####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10Giga 인터넷 시범 구축 사업 실시



경북교육청은 30일 의성군 소재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 10Giga 인터넷을 시범 구축한다.

10Giga 인터넷 시범 구축 사업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학교 통신망 구성에 시도별 1교씩 무선망 전용 1회선을 추가하여 그 효율성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내년 3월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로의 전환에 맞

춰 10Giga 인터넷 시범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10기가 전용 무선망은 12월 말까지 시범운영되며, 그 결과는 향후 학교 최적의 통신환경을 구축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장중찬 예산정보과장은 "2025년부

터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해 무선망 이용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시범 구축 사업의 결과를 자세히 분석·검증해 학교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팡팡!! 힐링과 협력의 복무 위한 사회복무요원 연수'

#### 포항교육지원청, 경북동부권역 특수교육지원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포항교육지원청은 2024년 1월 25일(목) 포항초등학교 강당에서 2023학년도 경북동부권역 특수교육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2023학년도 경북동부권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경희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육지원인력(사회복무요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수는 레크레이션 전문강사 김영현(현 특수교사)를 특별강사로 초빙하여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 및 복무사항 숙지, 다양한 레크레이션 및 장애체험 등을 기획하고 통합교육현장에서의 근태의

기강과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연수 활동은 다양한 장애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학교나 학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레크레이션으로는 마음열기 활동, 협력하여 탁구공 옮기기, 승부차기, 릴레이 장애체험 등으로 진행하여 교사와 지원인력 모두가 즐겁고 서로 간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의 학습 및 활동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로 진행하였다.

윤태용/기자



### 남부메이커교육센터, 「2024년 겨울방학 중 교원 메이커 연수」운영

#### 디지털 제작, 드론 촬영, 목공 기초/심화반 프로그램을 통한 교원 메이커 역량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남부메이커교육센터는 지난 23일부터 오늘3까지 2024년

겨울방학 중 교원 메이커 연수를 운영한다. 연수 내용은 '드론 과정'와 '디지털

제작 과정', 그리고 '목공 기초 과정'와 '목공 심화 과정'이다. 경상북도 관내 초·중등 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교원의 메이커교육에 대한 역량을 심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드론 조종 기초부터 촬영 실습, 영상 편집, 그리고 VR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드론 연수'는 학교에서 수업용으로 쓰기 위한 드론 비행 신고 절차에서부터 고급 드론 촬영 기법, 편집, VR제작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디지털 제작' 연수 역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디지털 캘리그래피 등을 이용하여 생활용품 제작하고 이를 수업에 연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목공 과정'은 기초 단계에서는 수공구과 전통 공구 사용법을 익히고 라탄 기법까지 융합하여 가구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심화 단계에서는 학교나 일반 기관에서 사용하기 힘든 대패 사용법을 전달하며 엔드그레인 도마를 제작한다. 2주간 진행되는 과정 연수를 통해 '경북형 메이커 프로그램'의 기반이 될 교원 역량

강화에 힘을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미술 수업과 융합된 디지털제작 수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 '드론 촬영을 하기 쉽지 않은데 재미있는 연수를 듣게 되어 기쁘다. 학교에 돌아가서 수업에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다.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교원 힐링 연수도 겸한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목공 과정에 참여한 교사 역시 '매우 실례는 마음으로 수강하였는데, 역시 행복하고 즐거운 겨울방학이 되었다. 내가 만든 가구를 볼 때마다 뿌듯할 것 같다. 자주 이런 연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상북도교육청 남부메이커교육센터의 모태화 센터장은 교원의 메이커 역량 강화와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위한 연수 강화를 후속으로 개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남부메이커교육센터는 2024년에도 '1일 메이커교실'을 비롯한 '메이커 기초반, 기본반, 메이커 동아리' 등을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의회 HANAM CITY COUNCIL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 서울시, 디지털 기기 어려울 땐? 주황색 조끼 입은 '디지털 안내사'를 찾으세요

### 자치구별 1개 조(2인/조) 평일 09:30~16:30 지하철역·대형마트·공원 등 순회

# 요즘에는 어딜 가나 직원이 아니라 기계(키오스크)로 주문하더라고요. 자주 보는 데도 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어려워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중간에 두고 나온 적도 많아요. 직원이나 물어볼 사람도 없을 땐 더 막막한데 '디지털 안내사'가 알려주니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차근차근 배울 수도 있어서 감사합니다.(70대 박 모 할머니)

# 예전에는 뭐 배우면 꽤 잘 익혔는데 이제 60살 넘다 보니 기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지방에 살아서 물어볼 데도 없고. 디지털 안내사 덕분에 스마트폰으로 손자 용돈 보내는 것도 배우고, 배달 반찬 주문하는 것도 배워서 은행이나 마트 안 가도 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 노인정 가면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도 내가 알려 줘요.(60대 이 모 할아버지)

서울시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 시내를 구석구석 누비며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돕는 '제4기 디지털 안내사' 145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참석해 제4기에게 디지털 안내사 신분증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고, '배움·배려·동행! 천천히 해도 OK! 서울시 디지털 안내사'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활동을 격려했다.

기준에 1~3기로 활동했던 안내사들



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4기 또한 일상 속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시민을 위해 적극 돕겠다는 다짐도 함께 했다.

시는 앞서 디지털 안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1월 15일 ~ 1월 26일 2주간 스마트폰 앱·무인단말기(키오스크) 이용, 시민 응대 등 사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활동할 '제4기 디지털 안내사'는 발대식 다음 날인 1월 31일부터 현

장에 배치, 2인 1조로 평일 09시 30분~16시 30분까지 주요 지하철역·대형마트·공원 등 어르신이 많이 찾는 30여 곳을 거점으로 순회하며 근무하게 된다.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인 제4기 디지털 안내사는 주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차표 예매, 길 찾기, 택시 호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도울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 처음 시작한 이

후로 지난해 말까지 활동한 400명의 '디지털 안내사'는 총 27만 명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서비스 이용자 98.6%가 만족하는 등 높은 호응을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안내사'는 어디서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자치구 당 보통 3개 노선을 정해 순환한다.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누구나 디지털 안내사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디지털 안내사가 활동하는 중에도 추가적인 보수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교육 및 상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기로 활동했던 임경희 안내사는 발대식 영상을 통해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디지털 안내사'를 알고 계신 분이 많아 놀랐고, 직접 다가가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더욱 뿌듯했다"며 "매일 시민을 대면하는 내가 디지털 안내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디지털화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약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디지털 안내사' 사업이 어느덧 4기를 맞았다"며 "'디지털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실현하게 해주시기 위해 감사드리며, 디지털 안내사 덕분에 서울시민 모두가 디지털 기기를 자신 있게 이용하게 되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구미시, 미래차 소부장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이엠케이 750억 원 투자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하이엠케이(주) 조정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엠케이(주)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이엠케이(주)는 2025년까지 750억 원을 투자하며, 50명을 신규 고용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제3단지에 전기차 부품용 알루미늄 소재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사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하는 친환경 EV 차량의 생산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LS머트리얼즈와 오스트리아의 알루미늄 압출 회사인 HAI(Hammer Aluminium Industries GmbH)가 합작해 지난해 7월 설립됐다.

하이엠케이(주)의 한국 시장 주요 타겟 제품은 전기차용 Side Sill & BPC(Battery Pack Case) Profile(차량 배터리 팩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의 부품)이며, 이

는 현대·기아차의 플래그십 차량의 전기차 모델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투자자인 HAI는 1939년 Hammer 가문이 오스트리아에 설립한 알루미늄 압출 회사로 2007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을 시작해 2021년 기준 매출 약 8,722억 원, 2022년에는 매출 약 1조 3,000억 원을 달성했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등 4개국 8개 공장에서 약 1,900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하이엠케이(주)의 첫걸음을 구미산단과 함께하게 돼 기쁘고, 이번 투자 결정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이엠케이(주)가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표 기업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 광주광역시, 현금·의료·돌봄·일·생활 등 아이키움에 올인

광주시가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모두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정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 출생·보육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직원 및 학부모, 신혼부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출생·보육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 가속화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광주형 출생·보육정책 '아이키움 ALL IN(올인) 광주 7400+'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광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케어는 ①양육초기 부모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에 α 개념으로, ②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③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④양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을 지원한다.

①양육초기 더 확실한 경제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

광주 출생아는 학령기(~17세)까지 누구나 1인당 7400만원을 지원받고,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양육 초기단계는 출산·휴직 등으로 가계소득 감소, 양육비 증가 등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해 첫만남이용권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0~7세를 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돼 총 296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첫째 출생아 가정에 0~7세까지 누적 2240만원이 지원된 것과 비교하면 72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대중교통비 지원이 시행된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50% 할인 정책이 시행되며, 출생아 가정은 최대 2인까지 10% 할인되는 '광주상생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②건강한 임신·출생을 위한 의료지원을 강화한 '메디컬케어'

광주시는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 소아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료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부부 모두에게 '가임력 검사비'(남자 5만원, 여자 1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 고위험 임신부, 미숙아 등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또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난자동결 시술비'(미혼여성포함)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출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3~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소아청소년 24시간 의료서비스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더 촘촘하고 스마트한 '돌봄 케어' 부모가 언제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손자녀돌보미 대상 아동연령을 8세에서 6세로 낮추고 이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한다.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간 상호 아이돌보미 가능하도록 '이웃집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6~12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개소 추가 설치해 총 39개소를 운영한다.

④일생활 균형사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일생활 케어'

지속가능한 출생·보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육 돌봄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정책은 광주를 구성하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10년 후의 광주, 20년 후의 광주를 만드는 미래전략에 반영하기 위

시설로 조성하는 'SI기반 어린이 상상 놀이터'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한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선운지구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출생·양육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반기에 '출생·양육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 양극화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비롯해 외국인 출생·보육지원 정책, 10시출근제, 공동육아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출생·보육정책안이 나왔다.

다섯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서영조씨는 "돈이 없으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되지만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이 없으면 정말 막막하다"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난해 광주시가 최초로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모든 정책은 광주를 구성하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10년 후의 광주, 20년 후의 광주를 만드는 미래전략에 반영하기 위

해 시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시작했다"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모체감도가 높은 출생·보육정책에 집중 투자해 '엄마·아빠가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 영양 들어다보시기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숲과 숲 이곳에서  
아름답게 오세요...  
영양국제밤아를 보호공원



**물**  
영양의 밤하늘  
이제부터 시작...  
영양국제밤아를 보호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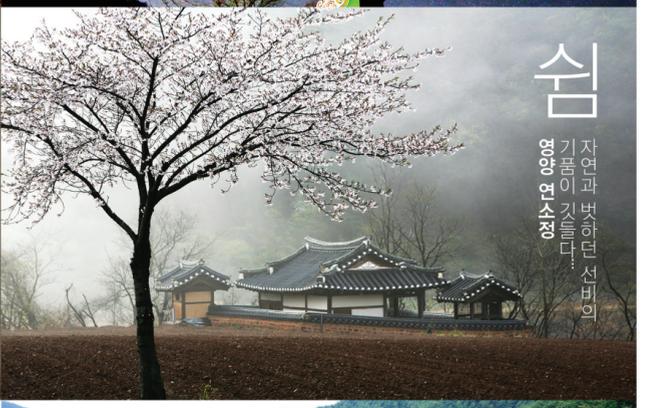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국제밤아를 보호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서석지



**맛**  
사백년에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아를 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